

자신의 어리석음 스스로 아는 이는
예뻐 보이게 되듯 슬기로운 사람인데
어린 이 닮아보려 어리석음 감춘다면
어느 때 기억하여 우치를 벗어보리.
-송요경 권재22-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성역화에 묻히는 '원각사'

서울시가 엄청난 역사적 조 명도 없이 탑골공원(사적 제354 호) 성역화 사업을 서두르고 있 어 교계의 비판여론이 높다. 탑골공원은 원래 조선 세조 가 사대문 안에 세운 국찰인 원각사가 있던 터로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됐다가 구한말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돼 오 늘에 이르고 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탑골공원을 3·1 운동 민족성지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성역화 사업을 고건 시 장 지시 아래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 공사에 앞서 서울 시가 3월 16일부터 실시한 원 각사터 시굴조사에서는 대형 초석 2점과 산스크리트 문양 수막새, 청기와 조각 2점, 우물 등이 새롭게 발견됐다. 시굴을 담당한 서울시박물관 측은 "출토유물 대부분이 원각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 후기 민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달 중순까지 조사를 끝내고 예정대 로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 원녹지과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8월 15일까지 성역화 사업을 마무 리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교계는 불교사적으 로 큰 의미를 가지는 원각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원각사 는 조선시대 최대 왕실 사찰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적지"라 며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원각사에 대한 역사적 규명작 업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각사 주 지 보리 스님도 "공사가 진행 될수록 원각사터에 대한 조사가 아 니라 가림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입장은 분명하다. 유형문화재과 심영섭 사무관 은 "국가 사적지 내 형질변경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도 서울시가 앞서 가는 면이 있다"며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추후 조사여부를 결정하 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질변경 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월 23일 열린 현장설명회 에 참석한 지도위원들은 출토 유물이 적어 당시 유적이 대부 분 상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그러나 문명대 교수(동국 대)는 "일단 성역화 사업이 끝 나면 다시 발굴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전면적 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권형진(취재 2부 기자)

장군죽비

◇유전자 변형 야기 출생. 기술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냉철히 인식할 때. (8면)

◇5월 8일(음) 4.15 하안거 결제. 1700여명 수좌, 화두 일년 돌임. 그 웅 맹스런 출발의 순간을 함께 한다. (11면)

◇5월 25일은 차의 날. 녹차 향기 그윽한 산사로 가자. 차나 마시고 가계 라고 불러줄 조주 스님 만나러. (14면)

◇국토 묘지화를 막을 사찰 납골당 건립. 지역이거주의에 발목 잡히 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면 끝까지 반대하라. (22면)



◇천성산 비로봉 정상부근 밀밭을 주위에 무단개설된 임도. 건축해가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양산시 천성산 사찰경내지 임도 개설 내원사 "고원습지 훼손"

조계종 환경위 "수행환경 파괴 강력 대응"

내원사주지 혜등이 위치한 천성 산이 양산시의 잇따른 임도 개설로 심각한 자연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도개설로 국내 최대 생 태보고로 확인된 천성산 고원 습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습지 보 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최근 양산시가 내원사의 사 전 허락없이 내원사 소유지가 포함 된 임도를 개설하면서 표면화되었 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양산 시가 진행한 하북면 용연리 일대 1km 구간의 상북-석계 임도에 내원 사 사찰림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 면서 반발에 부딪치자 더 이상의 임 도를 개설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원사의 측량 결과 9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10.5km의 임도 중 영산대, 덕계 구간에도 내원사 소유 산림이 포함되는 등 총 4km 정도가 내원사 경내지를 훼손하면서 개설되어 총격 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는 복구를 진행하지 않는 데다 도리어 개설된 임도를 이 용. 6일에는 민간단체가 주관한 철목 재에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 양산 경찰서장, 응상읍장을 비롯 100여 명의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천성산 습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 을 받고 있다. 천성산의 화엄능, 밀밭능은 세계 에 서 보기 드문 스프링지형 고원 습지로 264종의 식물과 76종의 동물,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식생사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충분한 곳 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우규 박사와 함께 천성산 능지를 발견하고 보고했 던 사진작가 김중호씨는 "습지가 사 람에 의해 짓밟히면 이탄층이 소실되 어 이를 완전 회복하는데는 무려 2백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습지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양산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환경위생과 관 계자는 "임도나 철목재 행사장과 습



<가지산도립공원내 임도 현황>

지와 전혀 무관하고 늘이는 사람들 이 출입하지 않고 있으며 습지 보호 는 환경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말 로 무관심을 드러냈다.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은 "천성산 습지 파괴는 내원사 계곡의 물고갈 등 내원사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 향을 줄 것"이라며 "임도 원상 복구 요구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고 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 님은 내원사의 실태 보고서를 토대 로 양산시의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 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 침이다. 양산=천희미 기자

범불교 환경단체 내달 창립

17일 결성준비 토론회

설악산과 지리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과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한 범불교 환경 단체가 다음달 29 일 출범한다. 이 단체는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 탐 백지화 범불교연 대'와 불교환경교육원 등 기존의 불 교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각 지 역의 환경 시민단체와 사찰이 참여 해 지역에 뿌리를 두는 풀뿌리 조직 을 지향하면서 백두대간 및 국립공 원 문제 대응, 사찰환경 네트워크 구 성, 불교환경이념 정립 등 다양한 사 업을 펼칠 방침이다.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 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유 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7

일 '불교계의 환경운동 영역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범불교 환경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사찰환경을 보호하 고 가꾸는 실제적인 조치가 부재하다 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준비위는 17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불교생명 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리산살리기국 민행동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공동집 행위원장 현승스님을 비롯 동학사 주 지 일연스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여진구 생대 보존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재일 두레 생태기행 대표, 임상진 녹색연합 사무 처장 등이 참석한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사년 하안거 결제 1700여 남자 정진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백암사 통 도사 등 5대 총림을 비롯 전국의 각 선원은 8일 신사년 하안거 결제식을 갖고 3개월 동안의 참선정진에 들어 갔다. 수행어는 전국선원수좌회의의 방 침에 따라 대부분의 선원에서 승려 4 월 보름인 이날부터 오는 8월 4일까 지 90일간 실시하나, 일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중인 9월 2일까지 하기도 한다. 이번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5 곳, 비구선원 48곳, 비구니선원 30 곳, 허외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1700명의 남자들이 방부를 들었다. 해인총림 방장 법연스님은 결제법 어를 통해 "어떻게 해야 진공(眞空)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 며 수행에 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방 장스님결제법어 3면) 정성은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녹차향 그윽 운사월 3寺순례

5월: 생계사·철물사·국사암
운사월을 맞아 자신의 업장 을 잊고 공덕 불기를 발원하 는 삼사(三寺)순례와 차문화 축제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 니다. 우리나라 차 사배지인 생 계사에 들어가면 신라때 김대 범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 한 차 사배비와 이 절의 향전 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봄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운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 자방(亞字庵)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철물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 38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 도 충분한 불거리를 제공 할 것입니다.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3사 순례의 선업불기와 더불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5월 26일(토) 밤 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초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윤년수 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하는 효의 실천입니다.

근원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련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품격있게 꾸려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 의(潤年壽衣)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화·농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 의의 삼베 이불(被褥)을 증정하여 드립니다. (안동삼베 특품이상)

품명	구성	재질	가격
안동 삼베 二品	남 20종, 여 18종	大麻(삼베) 100% 단섬유 기계직	550,000원
안동 삼베 一品	남 20종, 여 18종	大麻(삼베) 100% 단섬유 기계직	798,000원
안동 삼베 특품	남 20종, 여 18종	大麻(삼베) 100% 장섬유 기계직	1,150,000원
수직 특품	남 20종, 여 18종	大麻(삼베) 자연사 100% 수직	1,450,000원
안동포 七世	남 20종, 여 18종	大麻(삼베) 자연사 100% 수직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재래식으로 염색	3,950,000원

윤달(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카드 택배 가능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70-8호 태명빌딩 1F
TEL. 02-586-2544 영일부. 02-586-2553-5

주최: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후원: 泰明商社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